

# 教養體育의 現況과 改善方向

金 鍾 先

(梨花女大 體育學科)

## 1. 序 言

지난 몇 년 동안 大學人口는 급속하게 팽창되었다. 따지고 보면 1950년도의 만여 명을 상회하던 대학생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수십 만을 헤아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대학의 개념과 대학교육의 개념을 재검토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教養教育의 문제는 專門教育의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교양교육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은 1977년 5월 美國 하바드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그 절정에 달한 감이 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양교육에 대해서, 기초적인 학문이론의 도입적인 성격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에서부터 보편적인 지식인을 기르는 넓은 의미의 교양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하바드大學의 이른바 中核教育課程(core curriculum)으로 정착됨으로써 그 성격의 일단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교양교육이 단순한 교양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식적 비판을 통하여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모든 학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教育

課程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의 人文·社會 및 自然의 3계열을 ① 문학·예술, ② 역사, ③ 사회·철학, ④ 과학·수학, ⑤ 외국 언어·문학의 5개 계열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시간大學의 교양교육도 하바드大學과는 다르지만, ① 분석적 영역: 수학·분석철학 등, ② 경험적 영역: 사회과학·자연과학 등, ③ 도덕·가치적 영역: 종교학·고전학 등, ④ 미학적 영역: 역사학·예술사·문학비평 등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日本 쓰쿠바大學의 종합교육은 대학교육의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으로 大學을 제 1 학군: 기초학군(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제 2 학군: 문화생물학군(비교물리화학·인간학·생물학·농림학), 제 3 학군: 경영·공학군(사회공학·정보과학·기초공학), 제 4 학군: 의학전문학군, 제 5 학군: 체육전문학군, 제 6 학군: 예술전문학군의 6개 학군으로 조직하였다.

한편 國內 대학들도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대학 전체 과목 학점의 30%에 해당하는 교양과목 학점을 이수하게 되었다. 서울大의 교양교육 영역은 ① 한국사와 국민윤리, ② 국어와 작문, ③ 체육과 교련, ④ 외국어와 외국 문화, ⑤ 문학과 예술, ⑥ 역사와 사회, ⑦ 분석적 사고, ⑧ 과학의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연세대의

교양교육은 국어·영어·기독교개론·국민윤리·한국사·체육·보건·교련·철학개론·사회과학·제 2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화여대의 교양교육은 ① 필수교양(국어·영어·제 2외국어·기독교문학·한국문화사·국민윤리·체육), ② 계열별선택(인문계열: 1과목·3학점, 사회계열: 1과목·3학점, 자연계열: 1과목·3학점), ③ 일반선택의 3개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국내의 대학 교양교육의 내용 구성을 보면 확실히 종래의 形式的인 一般教育의 성격을 벗어나서 '統合된 人性'을 기르려는 意味가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大學의 교양교육의 개념 인식과 그것의 질적 수준은 날이 갈수록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일반적으로 4년 후면 기업체 또는 그 밖의 직장을 구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대학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한 지식의 상품화 경향과 각 학문 분야에서의 사상의 결여가 교육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그것을 배개로 한 취업에서만 학습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경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각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문제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냉담하고 피동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교양교육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대폭 보완·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教養必須로 되어 있는 體育에 대하여 그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改善方向을 考察하고자 한다.

## 2. 韓國의 現況

### 1) 教養體育 理解의 問題

과거에 비하면 학생들이 교양체육을 理解하는 면이나 教授內容이 많이 向上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교양과목 중 체육과목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선 교양체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교양체육 시간을 적당히 보내는 시간, 즐겁게 노는 시간, 혹은 힘든 근육운동 시간 등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있다. 이에 대하여 그 原因을 한마디로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라면 아마도 체육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많은 번인이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교양교육에 대한 그릇된 개념 이해와 체육시간의 분위기에서 얻은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체육 시간이 적당히 보내고, 놀고 그리고 힘든 근육운동만을 하는 시간은 결코 아니다. '체육인 環境'에서 말하듯이 '체육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있게 하는 정화과정이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은 참된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교양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이 의식의 문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개혁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양체육을 좋아하고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심은 되나, 항상 보다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담당 教授의 問題

이 문제는 비단 교양체육에만 限定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같이 문제시되고 있는 공통 과제이다. 즉 교수·강사의 연령과 교육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최근 교수의 평균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교양체육 교수진의 年齡도 전에 비해서 훨씬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임교수보다는 시간강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임 강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각 大學마다 자체 충원 계획에 따라 有能한 졸업생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임 강사보다는 원로 전임교수의 강의를 더욱 원하는 傾向이 있다. 또한 學歷과 교육

경력 및 運動能力 등에 학생들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 가급적이면 高學歷 소지자를 원하고 교육 경력이 多少 있고 두드러진 運動技能을 소유한 교수와 강사를 원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강사진의 資質의 平準化이다. 강사간의 質的인 不均衡은 팀 티칭이라든가 大單位 강의시의 評價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平準化는 先行되어야 한다.

특히 運動能力의 平準化는 더욱 중요하다. 참고로 1981년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양체육 담당 교수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양체육 교수의 직위별 현황

직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계
인원	50	54	47	57	173	381
%	13.1	14.2	12.3	15.0	45.4	100

〈표 2〉 교양체육 교수의 학위별 현황

학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인원	4	299	72	6	381
%	1.0	78.5	18.9	1.6	100

〈표 3〉 교양체육 교수의 연령별 현황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인원	35	172	126	38	10	381
%	9.2	45.1	33.1	10.0	2.6	100

〈표 4〉 교양체육 교수의 교육경력별 현황

경력(년)	1~3	4~6	7~10	11~15	16~20	21이상	계
인원	39	60	89	80	67	46	381
%	10.2	15.7	23.4	21.0	17.6	12.1	100

〈표 5〉 교양체육 교수의 담당 시간수별 현황

시간	9이상	10~12	13~14	15~16	17이상	계
인원	7	13	89	59	40	208
%	3.3	6.2	41.9	28.4	19.2	100

### 3) 學習內容의 問題

일반적으로 교양체육의 학습내용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球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간혹 수영이나 특수한 종목 등이 대학의 형편에 따라 채택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球技의 경우도 施設 器具 등의 制限으로 소수의 種目만이 채택되고 있다. 이를테면 男學生의 경우에는 축구·농구·배구·야구·테니스·핸드볼·탁구 등이 주종을 이루고, 女學生의 경우에는 포코렌스·에어리빅·배구·테니스·탁구·농구·소프트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극소수의 대학에서 수영이나 체력 육성·투기·골프 등의 종목이 채택되고 있다.

교양체육에서의 理論 강의는 주로 우천시나 학기초에 있을 뿐 거의가 課題學習의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大學에서 「大學體育」를 主教材로 보유하고 있으나 수업 현상과는 거의 직결되지 못하고 극소수의 理論 강의시에 활용될 뿐이며 주로 과제 부과시 參考資料의 役割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大學教材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일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양체육 시간은 아예 강의실조차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雨天時가 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一定한 교실이 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교실을 찾아 다닌다든가 아니면 아예 휴강을 하고 과제물로 대체하는 예가 허다하다.

### 4) 學習方法의 問題

이 問題는 바로 教授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물론 학습효과와 成敗가 단순한 교수기능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가 一次的이고, 학습이 二次的이라고 가정할 때 독립변인인 교수가 學習效果를 左右하는 최대 變因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학습방법이 명령이나 지시 일변도였음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들어서면 지도자의 구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체육 수업은 명령에서 시작하여 명령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학습의 主

體가 학생이라고 할 때 학생의 자발적인 태도가 말로 학습효과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지시나 명령은 그 당장은 效果가 있으나 지속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효과적이거나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보고에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교양체육 수업 현장을 보면 흔히 男子의 경우에는 게임 일변도이고 女子의 경우에는 각종 스포츠기능의 미숙으로 기본기능만을 연습하는 장면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오히려 고등학교의 수업의 연장이나 아니면 퇴보를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學習方法이 전체적이거나 방임적이어도 안 되고 어디까지나 民主的인 方法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미건조한 신체운동의 계속적인 반복연습도 삼가해야 한다. 보다 創意的인 교수방법을 開發하여 학생 스스로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學習으로의 동기 유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 5) 學習評價의 問題

아마도 教育의 문제 중 이 評價의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래 大學에서 졸업원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많은 대학이 絕對基準評價보다는 相對評價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一定한 수의 학생을 탈락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즉 평가는 탈락이라는 問題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신뢰도, 객관도 및 타당도가 전제가 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듣기보다는 수월하지 않았다.

그 동안 교양체육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또 학생들로부터 하여금 냉소를 받았던 理由가 바로 評價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출석만 하면 성적은 나온다는가 주먹구구식의 평가방법이라든가 하는 말은 모두 評價를 不信하는 데에서 온 결과이다.

그리고 評價와 직결되는 目標에는 분명히 認知的 領域, 情意的 領域 및 心理運動的 領域이 고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가는 心理運動的 領域인 技能 위주로 하여 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尺度가 교수 임의

의 絕對評價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평가의 道具가 客觀性이 없었다면 그 結果에 대한 물의는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강의당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강의방이나 평가 상황에서 많은 장해요인이 일어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教育의 過程에서 評價가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볼 때 한시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 6) 施設・器具의 問題

흔히 體育教育의 3大 要素로 지도자,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기구를 든다. 아무리 좋은 指導者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行動化하는 데에 필요한 場이 없다면 허사가 된다. 그것은 마치 수영장 없이 수영기능을 바란다는가 축구공 없이 축구기능을 바라는 것과 같다.

오늘의 대학은 전에 비하면 많은 시설이 확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外國大學에 비한다면 한심한 노릇이다. 최근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大會를 유치한 이래 비교적 각 대학에서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그것도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한 例로 全國적으로 室內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大學이 겨우 몇 개에 지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 종합경기장이나 종합체육관은 대학의 기본 시설로 되어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 주민의 스포츠나 레저의 센터로도 널리 活用되고 있다.

체육교육의 관건이 바로 시설·기구에 있다고 볼 때 이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많은 大學이 財政的 理由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나 대학은 물론 國家的 次元에서 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體育施設이 항상 운동장·체육관 등의 고정시설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간이시설 또는 특수한 시설을 개발·활용하는 모색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에 따라 많이 左右되기 때문에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이다.

### 7) 기타 問題

앞서 열거한 이외에도 敎養體育에 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허다하다. 예로서 學點 문제, 學級의 크기 문제, 각종 교수매체 문제 등이 그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 학점의 문제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전에 비해서 학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더욱 적어지는 추세이다. 본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 시행령상 교양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의 8학점에서 점차 4학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전체 이수 학점이 140학점으로 됨에 따라 많은 大學에서 2학점으로 내려가는 傾向이다.

둘째, 學級 크기의 문제이다. 제법 理想的으로 조정되다가 최근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시 多人數學級으로 변했다. 그러니 가뜰이나 制限된 場所에 학생수의 急増으로 수업상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셋째, 각종 교수매체의 빈곤이다. 實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役割의 매체를 사용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狀態이다. 최근 體育育成 보조기구나 각종 運動技能 向上을 위한 보조 및 보강 運動기재가 많이 상품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學習의 效果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기타 敎養體育 時間이 學內 他 行事와 대치되는 傾向도 문제이다.

## 3. 美國과 日本의 現況

### 1) 美 國

#### (1) 學點履修

대부분의 大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體育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다.

〈表 6〉 교양체육 이수 현황(NCPEA 조사)

구 분	필 수	선 택	무	계
학교수	150	15	1	166
%	90.3	8.0	1.7	100

美國 NCPEA(대학체육위원회)의 보고에 의

하면, 133개교 중 153개교가 체육을 필수로 하고 있고, 75개교는 2년간에 4學期, 48개교는 1년간에 2學期, 나머지는 기타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양체육보다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7〉 學點 이수 현황(California State College)

교양교육의 영역	교양교육의 교과목	학점	비 고
의사소통의 능력	국어, 외국어, 논리, 수학	18	총이수학점: 128학점
과학적 기능	생물, 화학, 물리	8	
자신의 이해	사회과학, 문화사, 인류학, 심리학, 체육, 경제	21	
감 상 생의 의의	예술, 음악, 문학 역 학	10 3	
계		60	

### (2) 學習內容 및 方法

美國의 교양체육 강의는 크게 理論 강의와 實技 강의로 大別할 수 있다.

理論에서는 體育에 대한 기초이론과 신체활동에 관한 기초 및 응용이론으로 신체적성, 신체적 컨디셔닝 등과 기타 스포츠 과학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강의하고 있다. 특히 시정각 자료물 이용한 새로운 교수방법을 도입, 흥미 위주로 하고 있다.

實技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선택되고 있다. 이들 종목 중에는 지역사회의 특성이나平生 體育, 또는 패 크리에이션 종류의 운동종목이 대부분이다. 또한 승마·태권도·호신술·유도·댄스·등산·골프 등의 종목도 있고, 조깅·터닝·특수체육 등의 강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력을 기르는 종목도 많다. 더 具體的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個人適性分野: 적응체육, 운동과 자세, 컨디션 조절,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조깅, 트레이닝, 크로스 컨츄리, 10종경기 등
- ② 체조운동: 체조, 텀블링, 트랜포린 등
- ③ 격투기운동: 태슬링, 호신술, 태권도, 가라테, 펜싱, 유도 등
- ④ 수상경기: 초보수영, 중급수영, 고급수영, 스킨 다이빙, 스프링 다이빙, 보우트, 스쿠

## ( 바 등

- ⑤ 團體 스포츠 : 농구, 럭비, 축구, 소프트볼, 배구, 야구 등
- ⑥ 個人 및 對人 스포츠 : 양궁, 배드민턴, 보울링, 골프, 라켓볼, 테니스, 스쿼시, 탁구, 사격 등
- ⑦ 야외활동 : 사이클, 관광, 등산, 스키, 오리엔티어링, 캠핑, 로울러스케이팅, 크로스컨트리, 낚시 등

이상과 같은 종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매 1학기초 등록기간중 소정양식의 지원서를 교양학부나 체육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수강에 입한다. 수강상에 필요한 一切의 경비는 수강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原則이다. 實技 지도 방법은 우선 기본기능을 익히고 다음으로 응용기술과 연습 및 시합실천 등의 順序를 거친다.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專攻에 못지 않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동작의 분석과 응용을 탐색적으로 실천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 (3) 施設 · 器具

前述한 바와 같이 外國의 體育施設은 우리나라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편이다.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각종 경기장, 골프장, 양궁장, 사위장, 탈의장, 보건소, 레크리에이션장 등의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담당 교수나 담당 직원들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며 수업계획이나 사용계획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종 용구나 기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얼마든지 대여받을 수가 있다.

## 2) 日 本

### (1) 學點履修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教養體育 學點을 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대학에 따라 4년간에 혹은 2년간에 이수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筑波大學의 경우 체육이론과 실기를 1학점으로 하는 과목을 4년 동안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와세다대학은 理論 강의 2학점, 實技 강의 2학점으로 구분해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 (2) 學習內容 및 方法

日本의 교양체육 강의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이론 강의와 실기 강의로 구분된다. 특히 實技 중에는 지체 부자유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여름, 겨울 등을 고려하여 계절 강좌를 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筑波大學의 개설 수업과목표를 보면 體育의 이론 및 실기를 위해 정규과정, 특별과정, 계절운동 선택과정, 집중선택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규과정에서는 지정된 시간에 1학점, 집중선택과정에서는 해당 학기내에 적당한 운동종목을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1, 2학년에서는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에 각 1학점씩 2학점을 이수하고, 3, 4학년에서는 정규과정과 계절운동 선택과정 또는 집중선택과정, 특별과정에서 2학점을 이수한다. 특히 특별과정을 수강코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체육학과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동종목으로는 축구, 야구, 배구, 핸드볼, 야외운동, 검도, 테니스, 체조, 트레이닝, 유도, 가라테, 무용, 럭비, 특수체육, 배드민턴, 탁구, 궁도, 골프, 계절운동, 스키, 스케이트, 보우트, 체형교정, 볼링, 수영 등이 있다.

한편 와세다大學의 교양체육 內容을 보면 理論 2학점은 1학년초에 강의하고 나머지 實技 2학점은 1학년에서 기초체육 증폭 1학점과, 2학년에서 응용체육 증폭 1학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다.

#### ① 기초체육증폭

A과정(신체와 체력이 정상인 남학생)

B과정(신체와 체력이 정상인 여학생)

C과정(A·B과정에 참가치 못한 남·여학생)

#### ② 응용체육증폭

A과정(남자 : 육상, 체조, 축구, 배구, 농구, 소프트볼, 핸드볼, 테니스, 탁구, 골프, 배드민턴, 유도, 검도, 던법, 합기도, 펜싱, 궁도, 레슬링, 씨름)

B과정(여자 : 배구, 무용, 탁구,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펜싱)

C과정(특별코스)

D과정(계절강좌코스)

학습방법에서 理論 강의는 40~100명 단위로,

實技 강의는 개인종목이 20~30명, 단체종목이 40~50명으로 받을 편성해서 강의한다.

특히 와세다大學의 이론 강의는 專攻 체육과 마찬가지로 주당 2시간씩 專攻分野別(19과목) 교수가 실시한다.

### (3) 施設·器具 등

美國보다는 多少 소규모이나 대부분의 대학이 充分한 시설과 용기구를 갖추고 있다. 특히 각종 實驗室에서는 이론의 실험은 물론이지만 體力診斷 검사나 運動能力 검사를 실시하여 學生 스스로가 자신의 體力와 운동 능력의 정도를 알고 이의 유지와 증진에 힘쓰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

- ① 體力診斷檢査種目: 싸이드 스텝 테스트, 씨전트 걸프, 배근력, 악력, 체후굴, 체전굴, 하바드 스텝 테스트
- ② 運動能力檢査種目: 50m 달리기, 달티뛰기, 핸드볼 공던지기, 탁걸이(남), 비껴탁걸이(여), 1500m 달리기

## 4. 改善方向

大學 敎養體育의 質의 改善策을 모색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現況과 問題點을 3장에서는 外國의 現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2장과 3장을 토대로 교양체육 효율화를 위한 戰略을 提示함으로써 改善方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敎養體育 認識의 問題

이 문제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존의 관념이 지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양체육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理解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교양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가 先行되고 다음으로 교양체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모든 교수가 질적 수준에서 向上되어야 한다. 이를 좀더 具體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 담당을 우선적으로 전임교수가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에 준하는 시간강사로 한다.

둘째, 교양체육을 담당하는 전 교수가 원샷 등의 모임을 통해서 교육내용의 분석, 평가, 토론 및 연구원 지속적으로 행하여 자질 向上과 수업의 질적 강화에 努力한다.

셋째, 校內의 모든 분위기가 교양체육이 전공체육과 같은 水準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감해야 한다.

### 2) 學習內容·方法 및 評價의 問題

우선 大學의 교양체육이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이라는 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 강의는 반드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中心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實技 강의의 形態는 게임 위주에서 벗어나서 기본기능, 응용기능, 게임 등의 순서를 밟고 반드시 교수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Syllabus에 의한 강의를 진행한다.

셋째, T.A 制度를 도입하여 그룹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네째, 理論과 實技를 잘 調和시킬 수 있는 내용의 課題를 부과한다.

다섯째, 理論評價는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하고 實技評價는 學期初에 그 水準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한다. 그리고 絕對基準評價를 原則으로 한다.

여섯째, 評價에 활용한 답안지, Report, 기타 모든 자료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敎育的 效果를 얻게 한다.

일곱째, 評價의 객관화를 위해서 강의 담당 교수의 공동출제와 공동제점의 방법을 原則으로 한다.

### 3) 體育施設, 器具 등의 問題

體育施設과 用器具를 확충하는 일은 막대한 豫算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中長期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첫째, 시설·기구 확충을 위한 中長期 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간이체육시설과 기구를 開發해야 한다.

셋째, 기타 敎養體育 效率化를 위한 敎育課程

模型 및 教授模型을 開發하여야 한다. 또한 現行 大學體育을 전면 改定해야 한다.

네째, 全校生과 教職員을 위한 健康 센터를 設立하여 活用해야 한다.

## 5. 結 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敎養體育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法이 보장하는 國策科目으로서 그 責任을 다하였다 하기에 는 아직도 거리가 꽤 먼 것 같다.

이에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겠으나, 우선 교양체육을 담당한 教授의 資質과 학생들의 體育에 대한 誤解와 偏見 등이 크게 作用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敎養體育 活性化를 위한 學校當局의 行·財政的인 支援의 미흡에서 은 노후하고 빈약한 施設·用器具와 각종 學習資料

등의 不足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제 大學 敎養體育은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는 없다. 그리고 安穩한 자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活路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따라서 敎養體育 效率化를 위한 획기적 改善策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方案을 提示코자 한다.

첫째, 敎養體育을 담당하는 교수 的 資質 向上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敎養體育 效率化를 위한 教育課程模型, 教授模型, 評價模型을 개발·活用해야 한다.

셋째, 現存「大學體育」(敎科書)을 대폭 改定해야 한다.

네째, 새로운 大學體育 施設基準을 마련해야 한다. \*